

나를 찾아서 떠난

노재의 산티아고 순례기

Part. 2

글. 노상천 아리랑국제방송 국장



지난 호에서는 산티아고 순례기를 위한 준비와 프랑스에서의 시작, 약 12일 간의 순례길 여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남은 여정을 들여다보고 순례길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필자의 경험과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멀리서 본 레온과 일요일 시내



11월 3일 17일 차

레온(León)

레온 역시 큰 도시다. 도시가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구시가까지 1시간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었다. 때마침 이날이 일요일이어서 성당에서 미사를 드릴 수 있었다. 큰 도시의 성당답게 성가대의 합창은 미사를 드리는 내내 감동으로 다가왔다.



레온 대성당(Catedral de León)과 성가대



Day 17



산토도밍고 광장의 보티네스 저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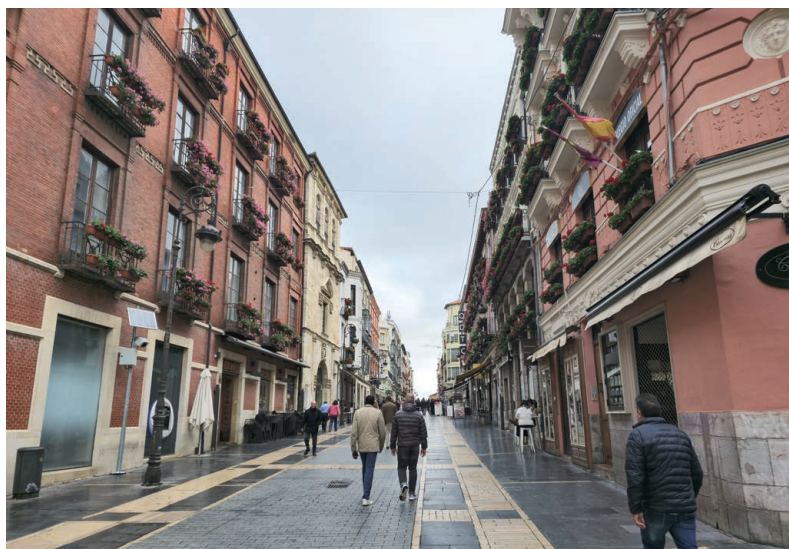


가우디 동상의 벤치

레온에는 특별한 건축물이 있는데 바로 보티네스 저택(Casa de los Botines)이다. 안토니오 가우디 (Antonio Gaudí, 1852~1926)의 건축물로 현재는 회화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내 투어용 꼬마 기차



레온 시내

예전 수도원 건물을 개조해 박물관과 호텔로 반반 나뉘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산 마르코스 광장(Plaza de San Marcos)에 있다. 순례자라면 이 장소를 꼭 거쳐서 레온을 벗어난다. 광장에 순례자상이 유명하다.



San Marcos 광장의 순례자 동상

San Marcos 광장의 박물관&호텔



11월 6일 20일 차

산타 카탈리나 데 소모사(Santa Catalina de Somoza) → 몰리나세카(Molinaseca), 35.7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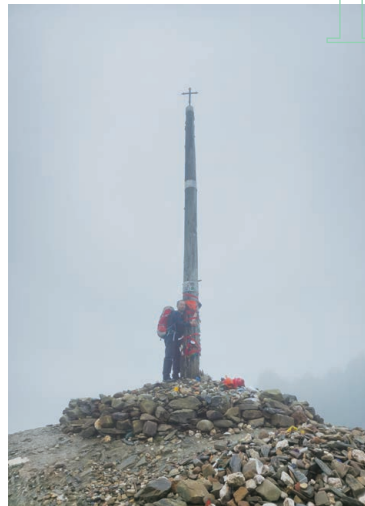
이 구간은 원래 폰세바돈(Foncebadón)에서 출발을 하도록 일정을 계획하는데 폰세바돈에 베드버그가 출몰한다는 '까친연' 단독방의 내용을 보고 여기를 지나치기로 했다. 그래서 하루 걷는 구간이 35.7km가 되었다. 전날에도 계속 오르막을 걸었는데 이날도 계속 올라가는 구간이다. 고도 표를 참고하고 그론세 앱에서 난이도를 찾아보니 3/5로 쉽지 않은 구간이다.

그리고 이 구간에는 폰세바돈을 지나 폰페라다(Ponferrada)로 가는 길에 나무로 된 철의 십자가 탑이 있다. TV나 유튜브에서 산티아고 순례길 프로그램에 항상 나오는 장소이다. 여기에서는 고향이나 순례길에 돌을 주워서 십자가 밑에 올려놓고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다. 필자도 산 밑에서 적당한 돌 하나를 주워서 십자가 밑에 올려놓았다.



산타 카탈리나 데 소모사 → 몰리나세카 거리와 고도표

Day 20



산티아고 순례길의 상징 같은 철의 십자가 탑



11월 7일 21일 차

몰리나세카(Molinaseca) → 비야 프랑까 델 비에르소(Villafranca del Bierzo), 32.12km

좌측 사진의 동그라미 부분을 내려와서 산 아랫마을에 묵고 출발하여 목적지인 Villafranca del Bierzo 마을에 도착했다. 이 마을은 스페인 하숙이라는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알베르게가 있는 마을이다(지금은 영입하지 않음).



TV에 나온 알베르게



11월 11일 25일 차

사리아(Sarria)에서 산티아고 구간은 단기 여행자들이 많은 구간이라서 숙박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다들 예약을 하고 다닌다. 그렇지만 공립 알베르게에 익숙해진 나는 예약 없이 그냥 다니기로 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하루에 2개 이상의 세요(sello, 순례자 스탬프)를 찍어야 한다.



사리아 출발 후 100km가 남았다는 표지석, 그리고 포트 마린(Portomarín)

Day 25



아르수아(Arzúa) 마을 표지와 숙소에서 내다본 풍경





11월 14일 28일 차

산티아고 입성

사리아에서 산티아고까지는 약 115km이다. 일반적으로 5일의 일정으로 걷는다. 나는 약간의 욕심을 내서 마지막 날 40km를 걸어서 4일 만에 산티아고에 입성했다. 원래 산티아고 순례는 33일의 일정으로 11월 19일 도착 목표로 일정을 잡았다. 생장에서 시작하여 부르고스까지의 12일 동안은 일정표대로 걸었다. 그다음 부르고스부터 레온까지 좀 빨리 걸어서 하루 40km씩 이틀 걸어서 하루를 절약하고 또 레온에서 사리아, 사리아에서 산티아고까지도 이렇게 하루씩을 절약, 총 5일을 앞당겼다.



산티아고 대성당



산티아고 입성 기념

Day 28



산티아고 대성당 내부

산티아고에 도착하자마자 인증사진을 찍고 순례자 사무실에 가서 완주증을 받은 후 숙소를 정했다. 숙소는 공립을 하려고 했는데 공립은 성당에서 너무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성당 근처의 호스텔에 짐을 풀었다.



산티아고 순례길 완주증



산티아고에서의 타파스와 저녁



11월 16일

무시아(Muxia) 피스테라 (Fisterra) 길

14일 산티아고 입성 후 하루를 온전히 쉬고 16일 또 하나의 길을 출발한다. 산티아고 순례에서 많은 생각과 깨달음을 얻고자 한 것은 아니지만 도착하고 나서의 공허함과 아쉬움을 느꼈다. 그리고 남은 5일의 일정을 소비하기 위함이랄까. 그래서 다시 순례길에 들어섰다. 이 길은 산티아고에서 무시아 그리고 피스테라 이렇게 걷는 114km의 공식 구간이다. 필요 없는 물건은 숙소에 맡겨놓고 최소한의 무게로 배낭을 꾸려서 하루 28km 구간으로 4일 계획으로 걸었다.



1일 차, 네그레이라(Negreira) 도시 입구



2일 차, 순례자들과의 식사



3일 차, 무시아 도시 전경



Mirador Jesús Quintanilla과 성당



4일 차, 피스테라 등대와 0km 표지석



피스테라 끝의 순례자 청동 신발

2024년 11월 19일. 순례길의 끝

10월 18일 프랑스 생장에서 시작해 11월 19일 스페인 피스테라. 산티아고에서 하루 쉰 것까지 포함 33일 만에 900km를 걸었다. 그동안의 여정을 정리한다면 할 것이 있을까?

나를 찾아서라는 명제를 안고 걸었지만, 아침에 잠시뿐이며 배낭의 무게를 어깨와 허리가 느끼느라 나라는 존재는 일찌감치 달아났다. 어깨와 허리의

통증은 고통의 강도를 누그러뜨리는데, 온 신경이 집중되고 다른 생각의 여지는 아예 없애버린다. 그렇게 걷다 보면 배가 고파오고 어디에서 뭘 먹을까 하는 생각에 나는 없다. 하루하루가 일어나 씻고 걷고 먹고 하는 일과의 반복이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발에 물집이 잡히지 않아서 걷는 데 지장이 없었다는 것이다.

순례길 정보

일반적으로 인터넷 검색으로도 순례길에 대한 정보검색이 가능하지만, 네이버 카페에 '까미노(camino)의 친구들 연합(까친연)'이란 카페가 있다. 산티아고 순례에 관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공유되는 곳이다. 나도 여기서 대부분의 정보를 얻었고 계획을 짰다.

또 2달 단위의 까친연 단톡방이 있어서 순례 중인 분들과 준비하는 분들의 교류가 가능하고 경험이 많으신 분께서 방장을 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순례길 준비물

배낭, 신발, 옷, 등 개별 선택해야 할 품목들이다. 기본적으로 자기 몸무게의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데 나의 경우는 61중 79품 총 12.6kg이었다.

- 배낭, 신발, 침낭 등 관련 물품
16중 5.9kg
- 바람막이, 패딩 등 의류 관련
13중 4.3kg
- 감기약, 항히스타민제 (베드버그), 안티푸라민, 소화제, 바셀린 등 9중 560g
- 치약, 칫솔, 비누, 면도기 등 세면도구 12중 820g
- 보조 가방, 여권, 보조배터리 등 12중 820g

그런데 아무리 빠고 줄여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 해서 일단은 가지고 가자. 힘들면 거기에서 버리자 하는 마음으로 배낭을 꾸렸다. 다행히 내 체력이 버텨주어서 버리는 것이 없이 그대로 들고 왔다. 단, 충전기를 여행 중에 기차에 꽂아두고 그대로 내렸다.

세 번째 비용

비용은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아무리 시간과 체력이 되어도 비용이 넉넉하지 않으면 힘든 것이 사실이다. 나도 10여 년 전부터 조금씩 모은 적금을 이번 여행에 사용하였다.



대서양을 바라보며

☑ 왕복 비행기표 140만 원

(프랑스 국내선 1회 이용 포함)

* 경유하는 경로를 이용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 가능

☑ 숙박비용 약 65만 원

* 최소 30일 이상의 여행에서 숙박비용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순례길에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알베르게라는 20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사회적 종교적 시스템이 존재한다. 공립 알베르게와 사립 알베르게가 있는데 공립의 장점은 예약을 안 해도 된다는 점이다. 무조건 선착순 입실이다. 최저 6유로에서 많이는 17유로까지 내 봤다. 평균 13유로(약 2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될 것이다. 운영은 종교단체나 시에서 운영한다. 사립은 공립보다 비싸고 2인실, 4인실 등 다양한 대신 그 비용을 감내하면 된다. 대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저녁 식사 등을 제공하고 여행자들의 대화 모임을 주선하며 공예프로그램 등 다양하다. 나도 공립 사립을 병행해 가며 순례길을 걸었다.

☑ 식사 및 일비는 평균 40유로

33일 하면 200만 원

* 아침은 전날 준비하여야 한다. 공립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찍 출발하기 때문에 아침을 해서 먹고 출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날 마트에 들러서 저녁거리와 다음날 아침거리를 준비한다. 나는 물, 바나나와 사과 그리고 중간에 먹을 간식 주로 초코바 에너지 바 등을 샀다. 그리고 제법 규모가 있는 도시면 근처에 바르(Bar)가 있어서 빵이나 토르티야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출발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두 세 시간 걸어 다음 마을에서 간단한 조식을 해결하곤 했다. 점심은 항상 애매했다. 스페인은 점심 식사 시간이 13시부터이다. 이 시간 전까지는 식당에 들어가도 술과 안주만 판다. 메인 식사는 13시가 되어야 주문을 받아준다. 그래서 맥주와 토르티야 그리고 바게트 샌드위치 등으로 해결하곤 했다.

* 저녁은 다양하다. 알베에 주방시설이 있으면 마트에 들러서 다양하게 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다. 특히 스페인은 식품 가격이 저렴해서 해 먹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4인분 파스타를 해먹을 수 있는 면과 소스를 3유로면 살 수 있다. 돼지고기, 소고기 또한 저렴하다. 삼겹살 1kg을 8유로(12,000원)에 샀다. 도시의 식당에서 사 먹는 것도 추천한다. 가리비 마크가 붙어있는 식당에선 순례자 메뉴가 있다. 이런 곳에선 보통 14유로에 코스로 식사를 할 수 있다. 나중에 터득한 것이지만 순례자 메

뉴보다 세, 네 명이 그 식당의 메인 요리를 하나씩 시켜서 나누어 먹고 같이 계산하는 것을 추천한다. 더 다양하고 여러 음식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

레온을 들어서서 갈리시아 지역으로 가면 공립 알베에는 주방이 있지만 그릇이나 수저 등 도구가 없어서 해 먹을 수가 없다. 주변 식당에서 사 먹으란 얘기다. 대신 갈리시아주 정부에서 관리하여 알베는 웬만한 사립보다 청결하다.

나의 비용 합은 비행기 표 140만 원, 여행준비물 150만 원, 숙박 65만 원, 식비 및 일비 200만 원 해서 약 555만 원 정도 지출을 한 것 같다.

정리

1991년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이렇게 장기간의 휴가와 여행 더군다나 혼자만의 여행은 처음이었다. 정년을 바로 코앞에 앞둔 시점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기가 필요했다. 그러나 여행은 그런 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는 것 같다. 그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 주는 것으로, 아직도 내가 할 것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